

커피재배가 재배국 무역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김운성*

<目 次>

- | | |
|-------------------|--------------------|
| I. 서론 | III. 커피 생산의 경제적 이해 |
| II. 커피 생산의 생태적 이해 | 1. 역사적 배경 |
| 1. 커피의 재배조건 | 2. 커피 의존적 농업 |
| 2. 커피생산지의 생태적 변화 | IV. 결론 |
| 3. 대안적 재배방식 | |

I. 서론

커피는 코코아, 차와 더불어 음료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중남미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대부분이 생산하는 대표적인 수출품목이다. 그러나 차가 생산국 전통 방식으로 가공되고 자국 소비가 많은 반면 커피와 코코아는 때로 생산국 GDP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무역에서 중심이 되고 있어 해당국 국민경제 안에서 위치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단일종만을 생산하는 플랜테이션(plantation) 방식으로 재배되는 커피생산은 생태적으로는 토양유실과 산림파괴, 종다양성 감소 등 여러 가지 피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산림파괴가 경작지 확대를 위해 커피 재배 초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회적이지만 영구적 변화라면, 종다양성 감소와 토양훼손은 단일경작이 지속되는 한 동반될 수밖에 없는 계속적 작용이다. 여기에 더해 지속적인 커피가격의 하락과 장기화된 과잉생산으로 커피 수출국의 빈곤 역시 구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커피 생산은 생태적 자산의 파괴가 경제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괴의 범위가 점차 넓어져 생태적 빈곤이 경제적 빈곤으로 점차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상명대학교 강사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경제와 환경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빈부차를 의미하는 남북문제의 해결¹⁾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큰 과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수출상품인 커피 생산이 무역과 생태에서 처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현재보다 나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남미와 인도네시아의 커피생산은 식민지 시대에 시작되고 중요한 국민경제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에 선진국은 커피생산의 경제적 생태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느낄 입장이다. 우리나라 역시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 하나로 커피 수입에서 2006년 현재 세계 16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때문에 열대작물인 커피 생산과 무역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생산과 판매의 전 과정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 글은 아프리카와 중앙아메리카 커피생산과정에서 벌어지는 생태적인 문제점과 상품작물로서 무역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역사적 과정과 기본적인 통계량 분석에 의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커피 생산의 생태적 이해

1. 커피의 재배조건

1) 재배지역과 품종

커피는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위 25°선인 열대 습윤, 열대 고습윤 지역에서 재배된다. 커피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지만 플랜테이션은 18세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의해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시작되었다.²⁾ 이후 커피 플랜테이션은 19세기 중반 라틴 아메리카지역으로 확대되어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의 멕시코, 엘살바도르, 아이티, 푸에르토리코 등으로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등으로 확대되었다. 20세기 후반까지 전 세계 커피의 60% 이상이 브라질에서 생산되었다. 그러나 커피 재배면적은 20세기에 들어와 탄자니아,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등 2차 대전 이후 해방된 아프리카 적도국가들로 확산된다. 현재 커피생산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제외하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 집중되고 있어 30개국 이상 아프리카 국가와 28개국 이상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커피를 재배하고 있다.

커피나무는 고지대 식물로 연 강수량 1500mm~2000mm, 해발 1000m~3000m의 습윤한 열대 고산지역에서 자란다. 고지대에서도 계곡이 비록 토양은 더 비옥하지만 이보다는 별이 높은 능선이 재배지로 더 선호된다. 상품작물로 재배되는 종은 아라비카종, 로부스타종, 라이베리

1)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4년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가 설립되었다.

2) 당시 네덜란드 식민경영의 가혹함은 네덜란드의 비판적 지식인이었던 이루하르트 데커의 의적소설인 「막스 하벨라르」에 잘 나타난다. 「막스 하벨라르」는 1988년부터 3세계 커피를 정당한 가격에 구입하는 공정무역(fair trade)의 상표명으로 이용되고 있다.

아종 세 가지인데, 이중 좋은 품종으로 상품성이 높은 아라비카종이 전체 생산량의 90%이다. 아라비카종은 우간다 원산의 로부스타종과 라이베리아종과 달리 병충해에 약하며 고지대에서 자라기 때문에 커피생산은 전반적으로 고지대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다른 작물에 비해 병충해 피해도 많은 편이다. 다 자란 커피나무는 3~4.5m로 열대우림 대부분의 나무들이 20m 이상 자라기 때문에 매우 작은 편에 속한다.

2) 토양조건

재배지 토양은 부슬부슬한 다공질이면서 유기질 토양인 테라로사나 라테라이트성 토양이 수확량과 향이 우수하고 부드러운 유기질 화산지형이 커피재배에서 가장 선호된다. 이러한 종류의 토양은 강우에 따라 침식·유실이 쉽다. 전통적인 커피 재배에서는 열대우림의 높은 나무들 사이에 커피나무를 재배하였으나 플랜테이션 농장에서는 일사량을 높이기 위해 커피 나무보다 높은 나무는 함께 자라도록 하지 않는다.

2. 커피생산지의 생태적 변화

1) 열대우림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커피 재배지에서 시행되는 플랜테이션 방식은 지역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단일화된 커피나무는 크고 작은 열대 숲의 다양한 수종을 대체하고 해당 지역 특유의 산림농업(agroforestry)을 중단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생물종의 서식지 파괴로 종다양성을 훼손하게 되며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자리잡았던 농법을 바꿈에 따라 토양훼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 이러한 피해는 단일경작이 계속되면서 영구적인 사막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제활동과 생태파괴의 과정은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국가와 적도부근 아프리카 국가에서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토지생산성을 낮추고 사막화하여 농업에 기반한 이들 국가의 경제-생태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후는 같은 위도와 같은 고도에서 일정하다. 산을 오르면 고도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생물종이 살고 있는데, 고지대 비탈면에서 자라는 커피는 해발 600m~1500m에 걸쳐있기 때문에 커피재배지는 다양한 생물종이 교차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중앙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은 확장되는 커피재배지로부터 숲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는데 엘살바도르의 경우 커피재배면적은 보호구역면적은 이미 16배가 넘는 규모이다(World Bank, 2004). 이미 상당한 산림파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토양에 미치는 영향

열대지방 토양은 습윤하고 일조량과 강우량이 많아 생산성이 높지만 비로 인해 유기물이 유출되는 속도가 빠르고 유기물의 분해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토층이 파괴되기 쉬워 일단

숲이 파괴되면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갈대밭이나 관불숲 등 열등한 토양조건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토양 황폐화는 경제적으로는 산출량과 산출물의 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Conecher(2001)에 따르면 열대지방 전형적인 토양인 cambisol에서 옥수수를 대상으로 토양피복상태에 따른 산출량 변화를 실험하였는데 토양유실율이 매년 5t/ha인 양호한 토양에서도 토양이 훼손되기 시작하여 산출이 절반으로 주는 데 20년도 걸리지 않았다. 대단히 양호한 토양과 생태계 조건에서 출발한 플랜테이션이 아프리카 사헬지역 생태계를 사막으로 만드는 데 불과 50년이 걸렸던 사실과 일치한다.

Gerold(2004)에 따르면 커피와 코코아 플랜테이션은 비로 인해 유기물이 유출되는 양이 새로 흡수되는 유기물보다 훨씬 더 커서 영양분은 토양에 축적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땅이 척박하게 된다. 플랜테이션이 20년 이상 진행된 농장들은 대부분 토양이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토양이 점차 황폐화 되어 그 지역이 더 이상 커피 플랜테이션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커피나무숲은 관불림 숲으로 변화하고 더욱 빠른 속도로 유기물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사막화에 이르게 된다. 토양 황폐화는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진다. 유기물을 담지 못하는 토양은 식물이 자랄 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고 그 저장고는 점차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에 생산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Scherr(1999)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중앙아메리카와 아프리카 토양의 생산성은 인구밀도가 높은 아시아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낮아졌다. 아프리카 토양의 생산성은 2차 대전 이전과 비교하여 1/4 줄었고 중앙아메리카는 2/5가 줄었다. 중앙아메리카의 농지는 74%, 아프리카 농지의 65%가 황폐화되었다. 이 두 지역 국가들은 20세기에 집중적으로 상업재배가 확대되었던 곳이다. 또한 세계경제 구성원 중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며 경제성장이론에서는 소위 가난의 덫(poverty trap)에 들어가 있다. 농업 중심 국에서 토양이 황폐화된 것은 현재의 빈곤이 한동안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커피와 코코아 플랜테이션에 의한 사막화와 숲의 파편화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많은 지역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사하라 이남 국인 가나의 Krobo지방은 19세기 후반부터 식민지로 개발되었고 1911년 코코아 플랜테이션을 시작하는데 1950년대에 플랜테이션 농장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주민들은 사막화된 토지를 버리고 이주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이 지역 숲은 관불림이 되어 열대우림이 사막화되는 데는 불과 백 년이 걸리지 않았다. 대표적인 오래된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은 19세기 후반 노예 노동을 기반으로 대규모 커피플랜테이션을 시작하였는데 이미 1920년대에 숲의 파편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Metzger, 1997). 본격적인 커피 플랜테이션이 시작된지 불과 50년이 지나지 않았다. 온두라스, 파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중앙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국의 생태계파괴는 외국계 기업에 의한 플랜테이션 농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50년대 이후에 급속도로 나타났다. 1950년대에 코스타리카 전 지역의 43%가 보통 이상 수준으로 토양훼손이 일어났고 25° 이상 되는 고지대 경사지가 많은 파테말라에서는 토양유실이 특히 많았고 엘살바도르는 1950년대 플랜테이션 커피농장이 들

어은 이후 자연림의 95%가 파괴된다(Faber, 1992). 베트남은 20세기 후반 커피재배를 본격화 하여 현재는 브라질 다음으로 커피생산량이 많다. 베트남 대표 커피재배지역인 Dak Lak에서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커피재배지와 산림 면적의 크기는 정확하게 커피농장이 늘어나는 만큼 산림 면적이 줄어들면서 변하고 있다. 1980년에 시작된 커피재배는 2000년 현재 250ha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 1265ha였던 산림은 1015ha로 줄었다(D'haeze, 2004).

3. 대안적 커피재배방식

커피재배방식에는 커피나무에 그늘이 지는지 여부에 따라 열대우림 생태계의 천장(canopy)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키 큰 나무의 그늘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전통적 방식과 일조량을 늘리기 위해 커피나무만을 식재하는 방식과 작물혼재여부에 따라 단일재배(monoculture)와 복합재배(polyculture)로 나뉜다. 적절하게 혼재되는 큰 나무는 자연스럽게 커피의 병충해를 막고 비가림 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고 수목이 다양해지면 질소고정효과와 유기물 공급이 좋아진다. 커피나무 단일종으로 숲의 수목이 바뀌는 변화는 역사적으로는 최근인 1950년대 이후의 변화이다. 콜롬비아, 멕시코,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커피밭의 40% 이상이 커피 단일종 숲으로 바뀌었다(Faber, 1992).

커피나무는 3~4.5m 정도 높이로 자라기 때문에 나무로써는 작은 편이고 열대지방 나무로써는 드물게 작다. 열대 나무들은 보편적으로 20m~40m까지 자란다. 가장 높은 나무가 40m가 되면 그보다 작은 생물들이 틈새를 메운다. 생태계에 존재하는 이러한 천장(canopy)이 낮아지면 숲에 살 수 있는 동식물의 수와 종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멕시코의 경우(Moguel, 1999) 전통적인 방법으로 커피를 재배할 때 공존하는 나무의 종류는 13종에서 48종에 이른다.³⁾

III. 커피 생산의 경제적 이해

1. 역사적 배경

커피는 에티오피아 예멘 등지에서 전통적으로 재배되었고 수출품으로 인기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플랜테이션이 진행된 곳은 인도네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등으로 유럽 제국의 식민 지배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급격한 가격등락과 농작물로서 커피가 지닌 특성⁴⁾ 때문에 이들

3) Oxfam 등 NGO가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기구에서는 커피 공정무역의 조건으로 그늘재배(shaded), 유기재배(organic), 최저가격보장 등을 들고 있다. 공정무역에 의해 거래되는 커피의 양은 전 세계 교역에서는 1%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는 전체 판매량의 20%를 차지한다(Oxfam, 위의 책).

4) 커피 재배지는 다른 작물로 대체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첫째, 커피가 산맥의 능선에서 자라기 때문에 밀이나 사탕수수 같은 평지작물을 키우는 곳으로 대체할 수 없다. 둘째, 커피는 환금성이 높은 작물이기 때문에 생산자는 커피농장을 이전의 자연림 상태로 돌리지 않는다.

국가는 그다지 커피무역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지 못했고 그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커피 과잉생산은 이미 20세기 초반 브라질에서 예를 찾을 수 있다. 1930년대 브라질은 커피재배지를 늘리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세계 커피시장을 장기적으로 공급과잉 상태로 가져 가게 된다. 1937년 브라질에서 파괴한 커피는 총 1,032백만 킬로그램이다. 그러나 브라질은 재배지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을 공급하면서 커피산업을 보호육성한다. 커피는 브라질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국가 보호산업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1) 19세기~1930년, 커피 호황기

이 시기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커피재배가 본격화되었는데, 그 시작은 이들 국가가 정치적으로 식민지배에서 해방되는 1830대와 일치한다. 커피가격은 매우 좋아서 많은 나라에서 경쟁적으로 재배를 시작하였고 콜롬비아의 경우 커피가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70년대에 7%에서 1920년대에 75%까지 올라갔고(Wickizer, 1951) 브라질에서는 1830년부터 1840년까지 계속 커피재배를 확대하는데, 1840년대의 경우엔 해마다 8%씩 수출량을 늘린다. 8% 성장을 이라는 수치는 매우 중요한데, 이 추세는 10년마다 기준년의 두 배가 되기 때문이다. 19세기 중반 라틴 아메리카 커피 수출량은 십년마다 두 배가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커피재배 시작 이후,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커피 경기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브라질의 경우 이 시기 커피는 전체 무역수지의 75%를 차지할 만큼 브라질 국가경제를 지배했고 이러한 경향은 브라질 구공화국(1889~1930) 시대에 특히 두드러졌다(Font, 1987). 브라질은 1835년부터 커피재배가 증가되어 경작지 확대경향은 1930년대까지 이어진다(James, 1932). 브라질 커피경제는 19세기에 1857~62년, 1869~73년, 1886~1891년 세 번 호황기와 그 사이 불황기를 맞는데 이 시기 무역수지는 불황기에 오히려 더 좋다. 그러나 생산량 자체는 커피시장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다(Pelaez, 1976). 커피는 산출량 변화가 크고, 대개 풍작 뒤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철도건설과 재배지 확대경향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대표적 커피 생산지인 상파울루 주에서는 토양과 기후 면에서 적합성이 높지 않은 지역도 교통의 편리함 때문에 커피재배지가 되기도 하였다.

브라질,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가 노예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플랜테이션 재배를 할 때 코스타리카, 푸에르토리코, 콜롬비아에서는 소규모 자작농 중심의 커피재배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들 국가에서는 커피재배가 사회 계층을 구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 지역에서는 이전에 사탕수수를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재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커피는 설탕과 대체되는 관계에 있었다. 설탕의 무역수지가 나빠지면서 설탕재배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커피재배비율은 늘어난다. 그러나 사탕수수재배조건과 커피재배조건은 다르기 때문에 사탕수수재배지역이 커피재배지로 바뀌었다기보다는 노동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푸에르토리코의 경우 커피 수출은 1850년대부터 점차 늘어 1851년 12.1백만 파운드 수출에서 약 20년 후인 1879년에는 286% 증가해 67.2백만 파운드로 증가한다. 1880년대와 1890년대 설탕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커피는 증가한다. 수출액에 있어서도 커피는 1886년에는 4.7백만 페소로 전체 수출액의 49.4%를 기록하고, 십년 뒤인 1896년, 세 배가 증가하여 13.9백만 페소에 비올로는 전체 수출액의 76.9%를 차지한다(Bergad, 1983). 커피가 견인하는 경제구조는 엘살바도르, 파테말라 등 주변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사회경제적으로도 이 시기에 커피 생산자, 무역업자들이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자리잡는다.

아프리카에서는 역시 포르투갈 영향 아래 있으면서 오랫동안 브라질과 농업교역이 많았던 앙고라 등지에서 1830년대부터 플랜테이션 재배가 시작되지만 그 양은 라틴아메리카에 비하면 많지 않았다(Birmingham, 1982). 아프리카에서 상업적인 커피생산은 로마 카톨릭 선교활동과 관련이 깊다. 1864년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1914년 케냐와 탄자니아에서(Kieran, 1969), 1920년대에는 카메룬에서 식민통치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작물로 자리잡는다.⁵⁾ 하지만 이 시기 아프리카 커피 생산량은 라틴아메리카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플랜테이션 커피 생산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 1930~1949 대공황과 세계대전

이 시기 커피경제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대공황 이후 커피가격은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 둘째는 2차대전을 전후로 가장 큰 수입국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후 뉴욕시장에서의 커피가격이 전 세계 커피가격 기준이 된다.

1929년 대공황은 이미 세계경제의 한 블록이 된 커피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그 충격은 29년 당해에 나타나지 않고 1932년경에 비로소 분명하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커피인 Santos No. 4의 가격은 1923~1927년 평균 60kg 기준 5.10센트에서 1928~1932년 평균 3.45센트로 떨어지고 1939년 4.25센트로 상승하지만 다음해에 다시 1.32센트로 급격히 떨어진다. 1931년, 브라질은 처음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남은 커피를 처분(destruction)하게 된다. 물리적인 수출량은 1934~1938년 다소 하락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출이 급감하는 시기는 2차 대전이 벌어지는 1941~1944년 사이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도 1910년 수출량 이하로 떨어지는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도 수출국들이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생산량을 거의 줄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콜롬비아는 오히려 수출량을 늘려, 1차 대전 이전 4.3%이던 세계 커피수출 비율을 2차 대전 직전에는 14.2%로,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는 18%까지 올린다(Wickizer, 1951).

1932년까지 미국과 유럽의 수입량은 비슷했지만 그 이후로 미국의 커피 수입량은 점점 늘어난다. 미국은 2차 대전 기간에도 커피수입량이 늘었으며 이후 세계 커피의 70%를 수입하

5) 카메룬에서는 커피 재배에 필요한 토지, 종자 등 제반 조건을 모두 당시 식민정부에서 관리했다.

는 나라가 되어 세계 커피시장에서 협상을 주도하게 된다. Wickizer(1951)는 1935년부터 1949년 사이 각국 총 커피생산량을 조사하였는데 보여준다. 1935~1940년보다 1945~1949년에 세계 총 커피생산량은 284,880천 kg 줄어드는데, 이는 브라질의 감소에 기인한다. 당시 이미 브라질은 세계 저가 커피시장을 이루고 가장 큰 규모로 커피를 생산하고 있었다. 콜롬비아와 아프리카의 앙고라 코트디부와르 등은 생산량을 오히려 늘렸다. 브라질은 국제 커피 시장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생산국이었다고 볼 수 있다(Roseberry,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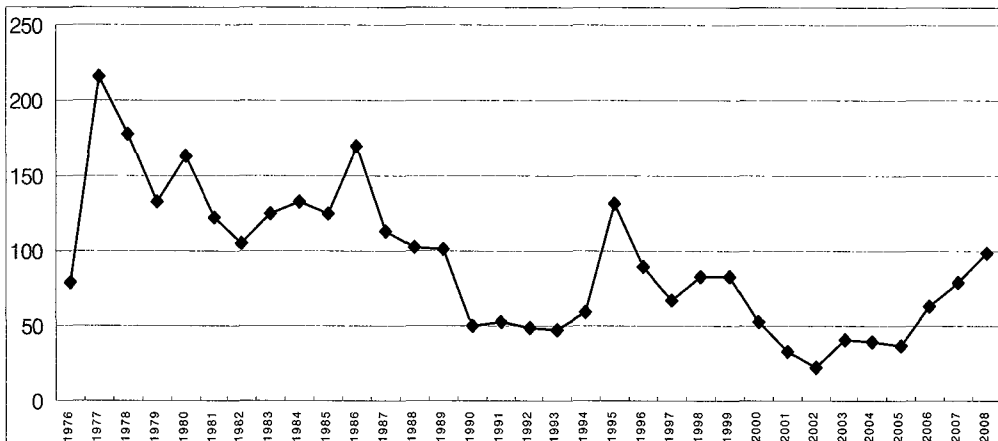
브라질 경제는 19세기 이후 커피수출이 거시지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1822년~1969년 사이 커피와 환율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Gelb(1974)에 따르면 브라질 환율은 커피가격 변동에 반응하고 있다.

2. 커피 의존적 농업

1) 가격의 급변과 상품작물로서의 지위

국제커피기구(ICO: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커피가격은 1980년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생산비를 밑도는 수준(Oxfam, 2004)이다. 커피가격은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면서 매우 불안정한 것이 세계 무역시장에서의 특징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계속하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커피가격의 불안정 문제는 매우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1940년대부터 수출국의 물량에 쿼터를 두어 가격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조정하려는 국제협약들이 만들어졌고 2차 대전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Inter-American Coffee Agreement가 대표적이다. 1963년 UN은 커피가격 안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UN의 감독 아래 생산자-구매자 카르텔인 국제커피



자료: ICO.

〈그림 1〉 로부스타 커피가격(1976~2008년) (단위: 센트/파운드)

피기구를 세운다. 이 기구를 통해 거래되는 커피는 전체 무역량의 90%를 넘는다. 그러나 커피가격은 1970년대 초반과 1980년대 초반에 급반등과 급하락을 겪으며 불안정하였고 지난 30년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아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로부스타 커피가격을 기준으로 1파운드당 가격은 1990년 이후 100센트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산가격 이하로 판매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영향은 생산국 전체에 매우 크게 미치고 있다.

커피가격이 생산비를 밑돌 정도로 낮아진 원인은 19세기 식민지 지배 이후 세계 무역시장에서 산업 원재료의 생산지이자 상품판매시장 역할을 강요당했던 역사적 이유와 아프리카산 커피에서 특히 심한 등급제에 따른 구매방식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커피를 섞어 품질을 맞추는 블랜딩(blending)을 하지 않는 아프리카는 일정한 수준 이상이 아니면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커피수매과정은 대단히 까다롭고 저가의 대량생산을 하는 브라질보다 생산자에게 더욱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생태-경제적인 해석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설명해볼 수 있다. 특별한 경제기반이 없는 이들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이 상품작물로 모두 커피를 선택하게 되자 세계 커피시장은 공급과잉상태가 되며 장기적인 커피가격 하락세가 이어진다. 한편 일단 숲을 개벌(clear cutting)하고 커피 나무를 심으면 토지이용은 바뀌기 어렵고 본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없다. 때문에 가격이 좋지 않아도 국가 전체 농업생산에서 커피경작의 비율을 줄이기 어렵다. 한편 고지대 경사지에서 이루어지는 플랜테이션 커피재배는 토양유실이 많아 생산성은 점차 떨어지고 유실된 토양은 저지대 농지까지 피해를 주게 되어 전반적으로 농토의 질이 하락한다. 농업 중심 국가에서 생산 자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토질하락과 종다양성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역에 있어 특별한 대안이 없는 이들 개발도상국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의 커피생산을 이어가기 때문에 국가경제는 지속적인 가난에 머물게 된다.

1950년대 이후 커피시장은 인스턴트커피가 개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커피 소비량이 늘고 커피 소비국이 다변화한다. 커피소비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인스턴트커피 시장이다. 1940년대에 스위스계 다국적 식품회사인 네슬레와 브라질 생산자들에 의해 시작된 인스턴트 커피시장은 미국의 General Food(Maxwell House)사와 분유회사가 참여하면서 시장이 커지고 1960년 미국 커피소비의 25%에 이를 정도로 소비율이 올라간다. 인스턴트 커피에 참여하는 기업의 규모는 1970년대 이후 대형화된다. 1970년대에 소규모 인스턴트 커피회사는 사라지고 대규모 몇 개 회사만이 남게 된다. 인스턴트 커피의 원료는 대부분 브라질에서 공급된다(Talbot, 1997). 1950년대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면서 미국에 집중되던 커피소비는 아래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80년대 중반이 되면 유럽 37.7%, 미국 43.4%이 여전히 높지만 그 밖의 지역의 비율이 18.9%로 높아진다.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신흥 산업국가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기호식품을 즐길 여유가 늘고 문화가 서구화되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 세계 커피 소비 비율

	총소비량	유럽	미국	그 외 지역
가격(billion\$)	25.59	9.65	11.11	4.83
비율(%)	100	37.73	43.41	18.86

자료: Penn World Table (1985).

농산물로써 커피가 갖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자국수요보다는 상품작물로써 재배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World bank(2003)에 따르면 1990년대 중앙아메리카 커피생산국에서 자국 소비율은 10% 안팎이다. 1991년 10.9%에서 2000년 소비율 8.9%로 다소 줄었다. 이는 생산량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커피생산이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2) 무역에서 커피생산의 영향

(1) 커피 생산량의 변동

아프리카와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커피는 중요한 수출상품이며 국민계정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커피생산의 차이 중 하나는 아프리카의 커피 플랜테이션은 2차대전 이후 이 지역 국가들이 식민지배에서 독립되면서 급속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1960년부터 1963년 사이에 식민지배에서 벗어났는데 이들은 국가에서 수출 증대를 위해 상품작물로 커피와 코코아 생산을 주도하여 늘리고 있다. 커피재배와 관련이 있는 아프리카 국가는 전체 아프리카 대륙 54개국 중 44개국에 달한다. 안타깝지만 1960년대 이후 2000년까지 아프리카 국가가 경제성장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콩고, 잠비아, 앙고라, 모잠비크 르완다, 말리의 경제성장률은 성장률이 0% 이하이고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케냐, 가나는 1% 안팎에 불과하다(Barro,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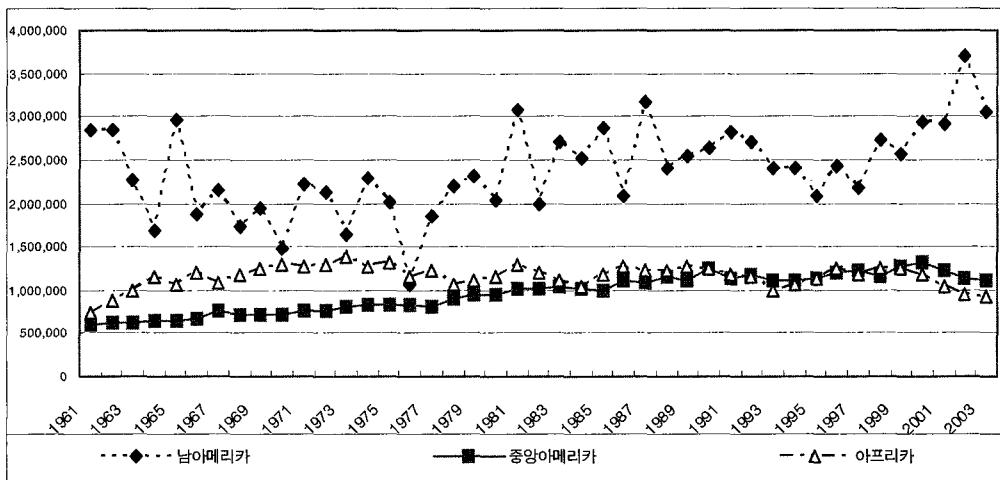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커피생산국에게 커피 생산의 경제적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생산의 안정성, 무역에서의 비중, GDP에서의 비중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생산의 안정성은 장기적인 수급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생산이 불안정할 때는 장기적인 전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득 안정성도 기대할 수 없다. 무역에서의 비중은 커피 의존도가 높을수록 커피 가격의 변화에 따라 국제수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역시 경제운용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GDP에서 커피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당 국가의 경제가 어

6) 탄자니아(1961년), 케냐(1963년), 우간다(1962년), 코트디부아르(1960년), 마다가스카르(1960년), 앙고라(1975년), 콩고(1960년) 등 주요 아프리카 커피 생산국 대부분이 1960년에 독립하였다.

는 정도로 단일 작물인 커피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커피생산이 무역 수지를 넘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이것은 커피 수출에 대한 국민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의미하며 커피 경기의 악화가 수출업 관계 일부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커피생산의 GDP 비중은 커피에 의한 국민경제 영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통계량은 세계식량기구의 통계를 이용하였으며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통계가 제공하는 1961년부터 2003년까지가 시간적인 범위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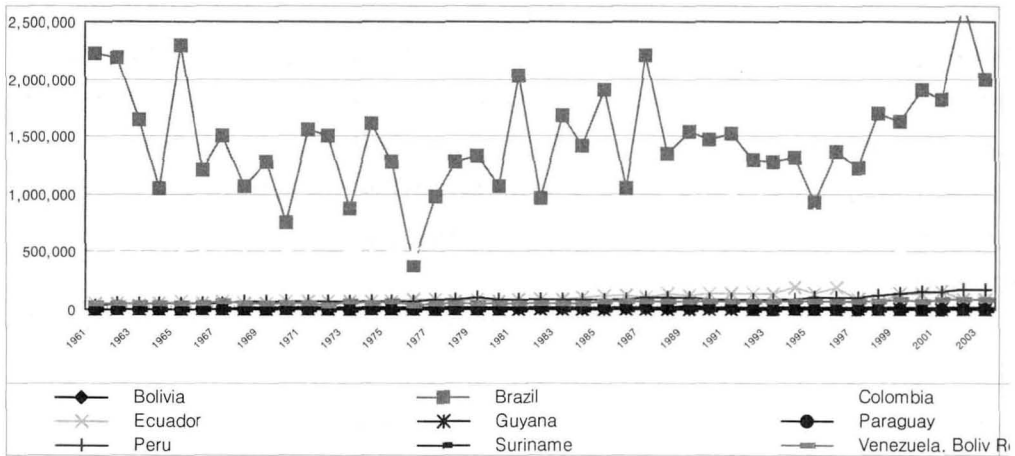
1961년 이후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커피생산량은 다음 <그림 2>과 같다. 중앙아메리카 생산량은 일정하게 증가하다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아프리카의 생산량은 60년대 초반 이미 중앙아메리카 생산량을 넘어섰다. 1930년대 중앙아메리카 생산량의 절반에 불과하던 아프리카에서 커피생산이 대단히 증가했다. 이후 전반적으로는 증가추세이지만 변동폭이 크고 최근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변동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남아메리카이다.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1966, 1971, 1977, 1983년 큰 폭으로 하락한다. 지역별로 볼 때 남아메리카 지역의 커피 생산은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변동이 심했던 남아메리카와 생산량이 증가한 아프리카에서 어느 국가가 변화를 주도적으



자료: F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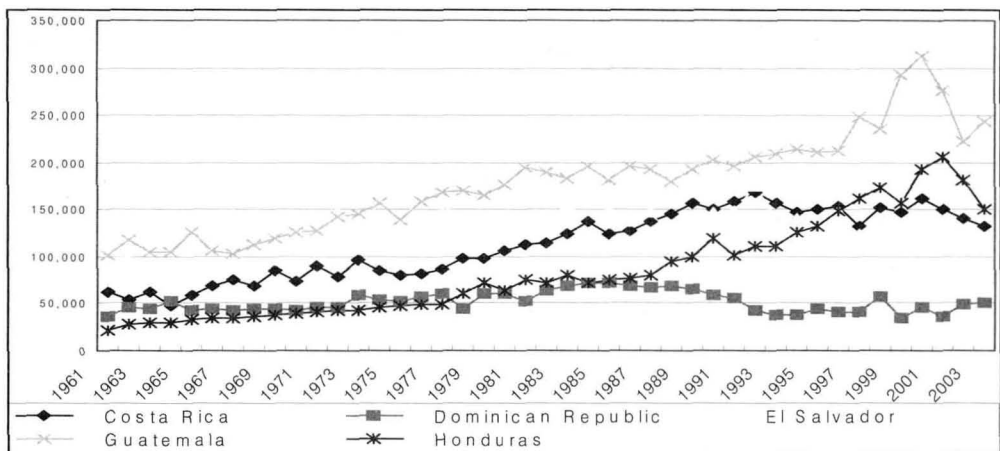
<그림 2> 1961~2003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커피생산(단위: metric ton)



자료: FAO.

〈그림 3〉 1961~2003남아메리카 커피 생산(단위: metric ton)

로 이끌었는지 알아본다. 다음 〈그림 3〉는 남아메리카 커피생산국의 생산량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아메리카 커피 생산은 브라질과 콜롬비아가 주도하고 있다. 이 지역 커피 생산량 변동이 심한 이유는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의 영향 때문임을 알 수 있다. 1965년 브라질은 약 230만 톤을 생산하여 1964년 약 100만 톤의 두 배가 넘는 양을 생산하지만 다시 다음 해인 1966년 약 120만 톤을 생산하여 전 해의 절반 수준을 생산한다. 이러한 불안정한 수급은 60 년대에 그치지 않고 90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브라질은 최악으로 하락한 1977년에는 세계 3위 생산국인 콜롬비아를 밀돈다. 콜롬비아는 브라질처럼 대폭으로 급등과 급락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다만 1992년 약 110만 톤을 생산한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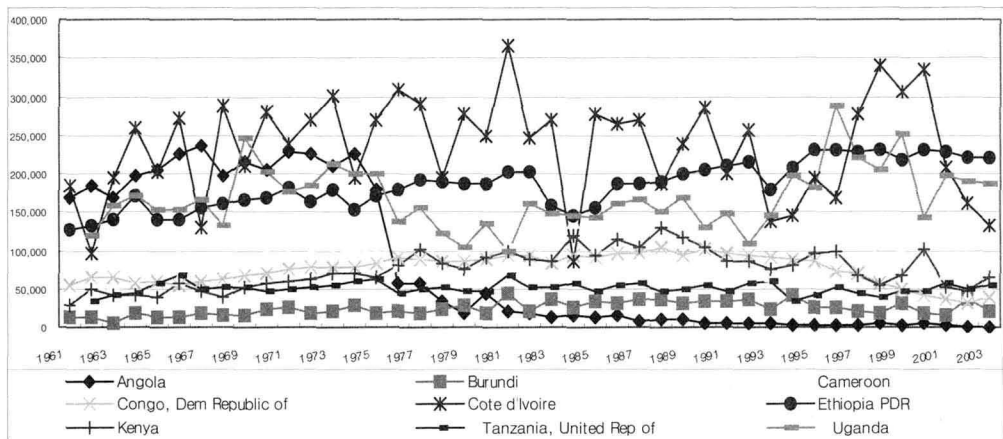


자료: FAO.

〈그림 4〉 1961~2003 중앙 아메리카 커피 생산추이(단위: metric ton)

위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커피생산량은 브라질과 콜롬비아를 제외한 남아메리카 국가의 생산량과 비슷한 100만 톤 안팎의 규모이다. 에서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는 대표적으로 커피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국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모두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61년 아프리카 총 커피생산은 732,940 톤으로 당시 전세계 생산량의 26%를 차지했지만 남아메리카 커피생산국은 9개국이고 아프리카의 커피생산국은 30개국이다. 따라서 국가별 생산량은 남아메리카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이중에서 생산이 비교적 많고 일정한 9개 나라(앙고라, 부룬디, 카메룬, 콩고, 코트디브와르,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에 대해 1961년부터 생산량 추이를 보았다. 아래 <그림 5>에 따르면 변동 폭이 가장 심했던 나라는 코트디브와르이다. 1981년 366,800톤까지 증가하였으나 3년 뒤인 1984년에는 81년 생산의 23%에 불과한 85,200톤으로 폭락할 만큼 편차가 크다. 한 때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커피를 생산했던 앙고라는 1975년 이후 생산량을 점점 줄여 지금은 거의 커피를 생산하지 않는다. 1961년과 비교해 2003년 현재 생산량이 증가한 나라는 세계 최고(最古)의 커피생산국인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이고, 고급커피로 유명한 케냐와 탄자니아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프리카 커피생산의 특징은 전체 대륙을 두고 볼 때는 중앙아메리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륙 내부의 커피생산국을 변수로 관찰하면 대단히 짧은 기간을 주기로 생산량이 각 나라마다 급변하고 있고 몇 국가는 커피시장에서 물러난 듯 하다. 그러나 그 원인이 불안정한 자국 정치상황 때문인지 재배지 생태 환경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코트디브와르, 탄자니아 등지에서 재배지 생태계 파괴 수준이 우려할 수준이라



자료: FAO.

<그림 5> 1961~2003 아프리카 커피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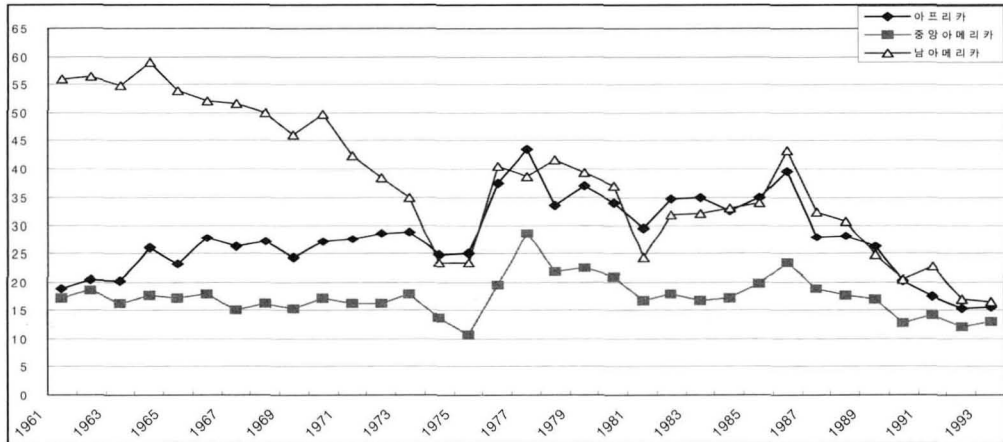
는 보고서를 찾을 수 있다(United Republic of Tanzania, 1999).

(2) 농산물 수출에서 커피의 역할

중남미와 아프리카 커피 생산국가들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농산물 수출에서 커피 수출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것은 커피 수출국 공통의 특징이다. 따라서 커피수출국 농업에서 커피시장의 변동은 해당국 농업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커피생산이 해당국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은 무역에서 커피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해 알 수 있다. 농산물 무역에서 커피생산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농업에서 가격의 불안정성과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커피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며 선진국과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커피를 재배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커피생산국 대부분이 빈곤국임을 감안한다면 빈곤의 덫(poverty trap)에서 벗어나기 위해 커피생산의 수급조절과 적절한 국제가격에 대한 논의가 수출국과 수입국 양측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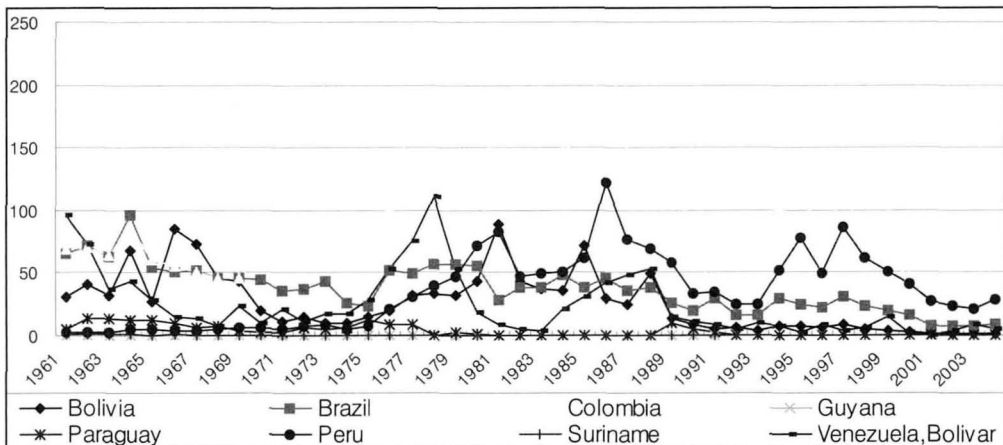
중남미와 아프리카 커피생산국은 생산량에서는 <그림 2>에서 본 바와 같이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무역에서 커피의 비중 변화에 있어서는 비슷한 경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 1960년도에 남아메리카 농산물 수출에서 커피의 비중은 55%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아프리카와 중앙아메리카 역시 커피의 비중은 20%를 넘고 있어 상당히 높았다. 1973년 이전까지 변화의 특징은 남아메리카 농산물 수출에서 커피 비중의 하락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 아프리카에서 농산물 수출에서 커피의 비중이 18%에서 25%로 다소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 때 까지는 남아메리카가 중앙아메리카나 아프리카와 같은 방향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973년 이후 2003년에 이르는 기간에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커피 생산국에서 농산물 수출에서 커피의 비중은 동반 상승하고 동반 하락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1990년대 이후 이들 지역은 모두 20% 대로 수렴하는 현상까지 보인다. 가격변화에 대한 생산량의 변화도 일치하지 않았고 생산량의 변동 역시 각기 다르게 움직였으나 농산물 수출액 대비 커피수출액의 비율 변화는 일정하게 같이 움직였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이 세 지역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 커피수출의 변화가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전보다 세계 커피 시장이 더욱 세계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FAO에 따르면 이 기간 아프리카와 중남미 커피생산량은 1961년 약 432만 톤에서 2004년 약 562만 톤으로 브라질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 가격은 <그림 1>에서 본 바와 같이 매우 변동이 심했고 현재 가격은 1980년도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고려한다면 실질가격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생산량이 늘었고 노동집약적인 커피농업에서 특별히 노동력 투입을 줄이는 기술성장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국민경제에서 커피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료: F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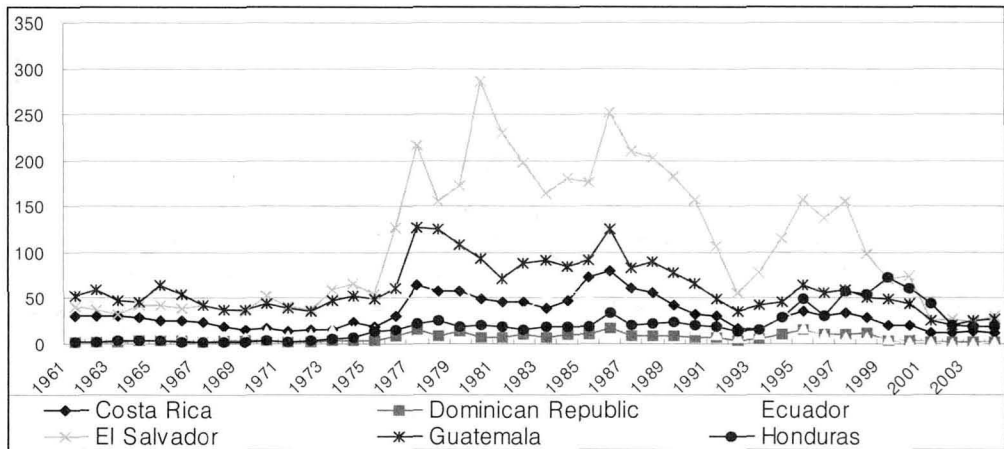
〈그림 6〉 커피가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단위: %)



〈그림 7〉 남아메리카 커피의 농산물 수출 비중(단위: %)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었을 것이다. 커피수출액과 농산물 수출액의 상관관계를 간단한 통계량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세 지역 모두 90% 이상 관련이 있었다. 커피가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 때에도 커피재배는 그 나라 농업소득 전체의 움직임과 같이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커피가격의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하락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하면 수출국별 변화상황을 통해 누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7〉은 남아메리카 주요 커피수출국에서의 커피 수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남아메리카의 커피수출국들은 전반적으로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수출비중



〈그림 8〉 중앙아메리카 커피의 농산물 수출 비중(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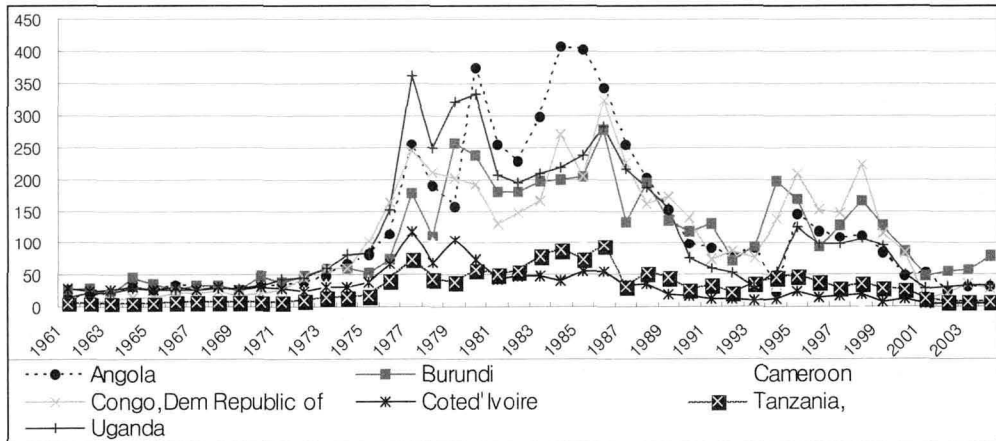
이 늘었다가 점차 하락하고 1990년대 중후반에 잠시 증가하는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수출비중이 줄어든 때는 당시 커피의 국제가격이 1980년대 후반 급락하기 시작한 것과 비슷한 시점이다. 국가별로는 콜롬비아와 페루,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 커피의 수출비중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콜롬비아는 100%를 넘고 있는데 이것으로 주변지역에서 콜롬비아의 이름으로 커피를 수출했음을 알 수 있다.⁷⁾ 2004년 현재 콜롬비아가 농산물 수출에서 약 37%, 페루가 약 30%, 세계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이 약 8%를 커피가 차지하고 있다.

〈그림 8〉은 중앙아메리카지역 커피 수출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지역의 농산물 수출 대비 커피수출 비중 역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매우 높게 성장하였다가 이후 폭락하고 1990년대 잠시 반등을 보이는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커피가격의 폭락이 이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엘살바도르 역시 콜롬비아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 커피의 농산물 수출 비중이 100% 넘고 있는데 주변지역 커피가 엘살바도르를 통해 수출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 현재 커피 비중이 가장 큰 엘살바도르가 약 30%를 보이며 다음 온두라스가 약 19%를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커피 수출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 6〉에서 본 바와 같이 남아메리카처럼 급격하게 감소해가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후 점차 감소해가고 있다. 주요 커피 수출국의 흐름 역시 마찬가지로임을 〈그림 9〉을 통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커피 수출이 농산물수출 전체를 넘어섰으며 급격히

7) 커피는 원산지별로 제품의 맛과 향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그에 따라 높은 등급을 받는 지역의 커피 가격이 높다. 콜롬비아, 브라질 Santos 4°, 하와이 코나, 케냐 AA 등이 지역 이름을 걸고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



〈그림 9〉 아프리카 커피의 농산물 수출 비중(단위: %)

올랐던 만큼 1980년대 이후 가파르게 감소하였다. 국가에 따라 400% 이상 상승하였던 이 지역 커피수출의 비중이 현재 20% 수준으로 수렴하였으므로 커피경기 하락에 따른 농업부문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커피 시장은 매우 세계화되어 국제 커피 가격의 변화에 따라 지역별 국가별 수출 움직임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커피가격은 지난 40년 동안 몇 번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전 세계 커피생산량은 줄지 않고 있어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과잉생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일단 산림을 커피농장으로 바꾸어놓았을 때 다른 농산물로 전환하거나 본래의 숲 상태로 돌리기 어려운 경제적 생태적 조건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남아메리카의 브라질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생산 수급조절에서도 매우 불안정한 경향을 보였다. 장기적인 세계 시장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급증과 급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시장가격이 불안정하다는 것 이외에도 커피생산국들이 커피생산에 대한 장기계획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농업에서 커피 이외의 대안을 상품작물로 찾기 어렵다는 것 등이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산물 수출에서 지역별 분석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세 지역은 각기 다른 경로를 거쳤으나 2004년 현재 커피가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20%대로 수렴하였다. 1960년대 이후로 커피의 비중이 가장 뚜렷하게 하강하고 있는 곳은 남아메리카이다. 남아메리카는 1960년대에 커피가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가량까지 올랐다. 그러나 1960년대 막 독립국이 된 아프리카 국가들은 비교적 커피 재배 역사가 오래된 아메리카 대륙과 달리 커피 재배의 경험이 짧았다. 아프리카 커피재배국들은 1970년대 커피 붐이 일던 시기에 가장 극적으로 농업부문 커피 의존도가 높았고 1980년대 가격급락에 의한 폭락 폭 역시 가장

켰다.

IV. 결 론

지금까지 커피재배가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국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과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먼저 생태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커피는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비탈면 일조량이 높은 지역의 부드러운 토양에서 단일경작되는 경향이 있어 토양유실이 많다. 이러한 경향은 상품성이 더 높으나 평지에서 잘 자라지 않는 아라비카 종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둘째, 커피재배는 장기적으로 토양을 황폐화시켜 결국 사막화에 이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다. 아프리카 전체 경작지의 65%가 20세기 중반 이후 훼손되었다. 커피나 코코아에 대한 단일경작인 플랜테이션은 독립국이 된 이후에 오히려 성행하였다. 이 중에서도 토양유실율이 높은 지역은 동아프리카 고지대, 마다가스카르 동쪽지역, 남부 아프리카 일부로 커피 재배지와 일치하고 있다. 농업국가에서 생산자 본이라 할 수 있는 토양이 유실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생태적인 회복과 경제적인 발전 모두를 낙관하기 어렵게 만든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커피재배가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기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중남미에서 커피재배는 경제전반에서 구조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았고 20세기 후반 아프리카 신흥 독립국들은 상품작물로 커피를 선택했다. 그 결과 1970년대 잠시 호황을 누렸으나 세계 커피시장은 전반적으로 과잉생산 상태에 있었고 현재 커피가격은 생산비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낮다. 둘째, 특히 브라질과 아프리카 커피생산국들은 특히 수급조절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1980년대 이후 커피수출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전체 생산량은 줄고 있지 않고 아프리카 국가에서 폭락의 폭은 매우 컸기 때문에 해당 국 농업에 미친 여파가 매우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커피는 종다양성이 높고 생태적으로 매우 예민한 열대우림지역에서 재배되는 상품작물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의 원료이다. 따라서 커피 재배지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은 지구적인 관점에서 생태자원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커피수출국은 대부분 농업중심의 개발도상국이고 커피는 대표적인 수출상품이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게 보다 나은 무역조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특히 식민경제를 주도했던 서구 국가들은 커피생산조건에 대해 책임을 느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커피 소비가 많은 국가로 지속가능한 커피 교역 조건에 대해 선진국과 함께 논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Barro, J. Robert (2004), *Economic growth*, 2nd edition. The MIT press, London, England.
- Bergad, W. Laird (1983), *Coffee and Growth of Agrarian Capitalism in Nineteenth-century Puerto Rico*,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US.
- Birmingham, David (1982), "A Question of Coffee: Enterprise in Angola", *Canad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Vol. 16.
- Brookfield, Harold (2001), *Exploring Agrodiversity*,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US.
- Conacher, J. Arthur (2003), Land Degradation: Papers selected from contributions to the sixth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s commission on land degradation and desertification, Perth, Western Australia, 20-28 September 1999,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Netherlands.
- D. D'haeze (2005),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Impacts of Institutional Reforms on the Agricultural Sector of Vietnam Land Suitability Assessment for Robusta Coffee in the Dak Gan Region", *Journal of Agriculture, Ecosystems, and Environment*, Vol. 105, pp. 59-76.
- Dean, Warren (1989), "The Green Wave of Coffee: beginnings of tropical agricultural research in Brazil (1885~1900)", *The hispanic american history review* Vol. 69.
- Faber, Daniel (1992), "Imperialism, Revolution, and Ecological Crisis of Central Americ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19, pp. 17-44.
- Font A. Mauricio(1987), "Coffee Planters, Politics, and Development in Brazil",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22(3), pp. 69-90.
- Gelb, H. Alan (1974), "Coffee Prices and Brazilian Exchange Rate", *Oxford Forest Economic Papers*, new series, Vol. 26(1), pp. 104-119.
- James, E. Preston (1932), "The Coffee Lands of Southeastern Brazil", *Geographical Review*, Vol. 22(2), pp. 225-244.
- Kieran, J. A. (1969), "The Origins of Commercial Arabica Coffee Production in East Africa", *African Historical Studies*, Vol. 2(1), pp. 51-67.
- Metzger, P. Jean (1997), "Relationship Between Landscapes Structure and Tree Species Diversity in Tropical Forests of South-East Brazil",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Vol. 37, pp. 29-35.
- Moguel, Patricia (1999), "Review: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traditional coffee systems of Mexico", *Conservation Biology*, Vol. 13(1), pp. 11-21.
- Pelaez, Manuel Carlos (1976), "The Theory and Reality of Imperialism in the Coffee Economy of

- Nineteenth-Century Brazil”, *The Economic History Review, new series*, Vol. 29.
- Raju, S. Sudhakar (2003), “Money, Real Output, and Deficit Effects of Coffee Booms in Colombia”, *Journal of Policy Modeling*, Vol. 25(9), pp. 963-983.
- Roseberry, William (1995), *Coffee, Society, and Power in Latin America* (edi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London. UK.
- Scherr, J. Sara (1999), *Soil Degradation: a threat to developing- country food security by 2020?*,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ion, US.
- Talbot, M. John (1997), “The Struggle for Control of a Commodity Chain: instant coffee from Latin America”, *Latin America Research Review*, Vol. 32(2), pp. 117-135.
- United Republic of Tanzania (1999) *Proposed National Action Programme to Combat Desertification*. FAO.
- World Bank (2003), *Dearing with the Coffee Crisis in Central America: impacts and strategi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993.
- World Bank (2004), *Export Commodity Production and Broad-based Rural Development: Coffee and Cocoa in Dominican Republic*.

〈통계〉

FAO, FAOSTAT

UN, National Account